

(나)

서 교사: 체육 교과와 스포츠 영역과 연계하여, 학급 신문에 실을 설명하는 글 쓰기 수업을 했는데, 초고를 보니 학생들이 마다 상이한 쓰기 수준과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유 교사: 정말 그렇네요. 학생 A는 ㉠ 예상 독자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표현 전략에 반영하거나, 독자를 고려해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수준 같은데, 글이 미완성이네요. 그리고 학생 B는 ㉡ 내용 조직 차원에서 설명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한다거나 높임 표현을 일관되지 않게 쓰는 등 독자 고려 측면에서 아직 미숙해 보이고요.

서 교사: 말씀하신 대로 학생 A의 경우 쓰기 목적이나 주제, 독자의 요구 등을 알고 언어화할 수 있는 담화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춘 학생이네요. 그런데 경험한 일을 쓰거나 편지를 쓸 때와 달리 이번 쓰기 활동에서는 “선생님, 쓸 말이 없어요.”라며 어려워하더라고요.

현 교사: 쓰기 지식 중에서 글로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해 알고 있는 지식인 (㉢)이/가 부족한 것 아닐까요? 설명하는 글은 특히 정보성이 높게 요구되는 장르여서 자기 표현적 글과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서 교사: 아, 학생 A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쓸 것인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전략만으로는 풍부한 내용을 생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다음 시간에는 ㉣ 학생 A에게 부족한 쓰기 지식을 보강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지도해야겠어요.

유 교사: 학생 B의 후속 지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 교사: 정확하고 완결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니 ㉤ 결과 중심 쓰기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글의 오류를 수정해 주고 모범 글을 따라 써 보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서 교사: 그것도 담화의 관습적 규약을 익힌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저는 쓰기가 사회적 행위라고 봐서 ㉥ 장르 중심 쓰기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려고요. 과거와 현재의 설명 글이, 제품 설명서와 학급 신문의 설명 글이 다르듯, 장르는 소통 맥락 속에서 존재하고 계속 변화하지요. 장르의 특성 탐구하기, 그 특성과 소통 맥락 연관 짓기, 자기 글을 공유해 담화 공동체의 반응 경험하기 등을 통해 설명하는 글에서 설명 방법이 어떻게 기능하며 왜 중요한지 알고 독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필자로 길러 주고 싶어요.

- 1) ① (가)의 학생 A의 글에서 (나)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그 표현상 효과와 함께 쓰고, ② (나)의 밑줄 친 ㉡을 참고하여 (가)의 학생 B의 글의 문제점을 쓰시오. [2점]

① _____

② _____

- 2) (나)의 괄호 안의 ㉢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의 예를 1가지 쓰시오. [1점]

- 3) (나)의 담화의 관습적 규약에 대한 밑줄 친 ㉤, ㉥의 관점을, 그 차이를 중심으로 각각 쓰시오. [1점]

3. (가)는 심 교사가 2학년 국어 수업에서 활용한 동화이고, (나)는 수업 담화의 일부이며, (다)는 심 교사가 쓴 자기 수업 비평문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4점]

(가)

기분이 솔솔 좋아지는 진달래떡

‘말도 안 돼. 세상에 기분 좋아지는 떡이 어디 있어? 분명히 거짓말일 거야.’

장군이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 그런데 쪽지 아래 가격표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어. 이상한 가격표가 붙어 있었거든.

가격: 행복한 웃음 한 개

‘행복한 웃음 한 개를 내면 떡을 공짜로 준다고?’

장군이는 언제 웃었나 생각해 보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하게 웃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 아빠는 공부 못한다고 만날 구박하고, 엄마는 동생 장돌이만 예뻐하고, 장돌이는 장군이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다가 조금만 실수하면 엄마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가 다 고자질했어. 그러니 행복하게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 가만히 있어도 자꾸 화만 나고, 저절로 주먹이 나가는걸 뭐. 반 아이들은 그런 장군이를 ‘버럭 장군’, ‘주먹 장군’이라고 놀려 댔어. 그것도 화가 나는데, 이제 ‘똥 장군’이라고까지 불리게 되었으니, 생각할수록 더 열불만 났지.

‘좋아! 억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장군이는 주문을 걸 듯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세 번 외쳤어. 그러고는 입꼬리를 귀까지 최대한 올리고 밝은 표정으로 ‘하하하’ 크게 소리 내어 웃었어. ‘이젠 됐겠지!’

장군이는 진달래떡을 덩석 집었어. 그런데 바구니에서 떡을 꺼내자 떡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리지 뭐야?

‘그럼, 그렇지! 나한테 공짜 떡이 생길 리가 없지…….’

장군이는 기운이 쭉 빠졌어. 어깨를 축 늘어트리고 떡집을 나서려는데, 그 순간 행복했던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올랐어. 예전에 장군이가 학교 숙제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어. 그때 엄마 아빠는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우리 장군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행복했지!” 하고 대답했어. 장군이는 당연히 엄마 아빠가 장돌이가 태어났을 때라고 대답할 줄 알았거든. 장군이는 그때 기억을 떠올리자, 행복한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

- 김리리, 『장군이네 떡집』

(나)

심 교사: 다 읽어 보았나요? 장군의 마음이 어땠는지 함께 이야기해 봐요. 자! 장군이 행복하게 웃었던 때를 떠올려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이가 말해 볼까?

학 생 A: (작은 목소리로) 장군이 마음이…….

심 교사: (귀 기울여 듣는 몸짓을 하며) 자신 있게 말해 줄 수 있을까? 천천히 생각해도 돼. 선생님이 기다릴게.

학 생 A: (자신 있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심 교사: (웃는 표정으로) 정말 잘 말해 줬어요. 또 말해 줄 사람 있나요?

학 생 B: (재빨리 손을 들며) 친구들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심 교사: 저런! 기분이 나빴어요. ○○이와 □□이가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지 잘 말해 줬어요. ㉠ 장군은 엄마 아빠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고, 친구들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 (중략) ...

심 교사: 그럼 이제 ㉡ 장군의 마음 변화 정리하기 활동을 해 볼까요?

(다)

수업 영상에서, 나는 아이들과 상호 작용을 잘하고 있었다. 수업의 흐름이 매끄러웠고,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며 공감하는 모습, 아이들이 차분하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말하도록 돕는 장면은 꽤 흡족했다.

다만, 아이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은 고칠 필요가 있었다. 장군의 마음을 짐작하여 대답하는 아이들의 말에, 나는 장군의 마음이나 기분이 ‘어떻게 안 좋았고 나빴는지’, 또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반응해 주지 못했다. 학생이 생각한 인물의 마음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작품과 연계하여 보다 명료하게 정리해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이번 수업에 만족한다. 영상에서,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진지함이 넘쳐 났고, 수업 분위기도 내내 활기찼다. 나의 문학 수업은, ㉢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1~2학년 문학 영역의 ‘가치·태도’ 범주에 속한 내용 요소를 고려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1) (나)의 밑줄 친 ㉠을, (가)의 [A]와 (다)의 [B]를 고려하여 고쳐 쓰시오. [1점]

2) <보기>는 (나)의 밑줄 친 ㉡을 위해 구상한 자료이다. ① (가)에 나타난 장군의 마음 변화 과정을 ‘마음 카드’ 4장을 활용하여 ‘활동’의 빈칸에 들어갈 순서대로 쓰고, ② <보기>의 밑줄 친 ㉢와 같이 정리한 근거가 되는 ‘인물의 행동’이 제시된 문장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2점]

—<보 기>—

○ 활동: 장군의 마음 변화 정리하기

□ → 호기심 → □ → □ → □ → ㉢ 만족

○ 마음 카드

실망 의심 분노 기대

① _____

② _____

3) (다)의 [C]에서 심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만족한 이유를 밑줄 친 ㉢의 내용을 고려하여 쓰시오. [1점]

영 어

4. (가)는 최 교사의 4학년 영어 수업의 일부이고, (나)는 수업 후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4점]

(가)

도입

T : Let's talk about when we are happy, using the expressions we learned last week. (여러 송이의 꽃과 핫 초콜릿이 놓여 있는 그림을 보여 주며) For example, I see beautiful flowers, and I'm happy. What about you?

S1 : I'm happy, too.

T : (동작을 하며) I smell hot chocolate, and I'm happy. (바닷가 모래성이 그려진 그림을 보여 주며) What about this picture?

S2 : I touch sand and happy.

T : Oh, you touch sand, and you're happy.

S2 : Yes. I touch sand, and I'm happy.

T : Great. (다른 학생을 가리키며) And you?

S3 : I smell ... and happy!

T : (바닷가 모래성이 그려진 그림을 가리키며) You mean, you smell sand, and you're happy?

S3 : Yes! I smell and happy.

T : (고개를 끄덕이며) Oh, I see!

전개

T : Now, let's move on to Activity 1. In this activity, you're going to listen to a poem about happiness, 행복. While you listen, look at the pictures and tr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poem.

I see beautiful rainbows.
I touch cold ice cream.
I smell delicious cookies.
I feel soft snow.
And I know I am happy!

T : Did you enjoy the poem?

Ss : Yes! 좋았어요!

T : Which expression do you like?

Ss : ...

T : Point to the picture you like most.

S4 : Soft ... (눈이 내리는 그림을 가리키며)

T : You mean this one? (눈이 내리는 그림을 가리키며)

S4 : Yes.

S5 : "I feel soft snow," I like.

... (중략) ...

T : Now, let's move on to Activity 2. In this activity, you're going to make your own poem in a group. (4명씩 모둠을 지어 준다.) I'm going to show you how to do this activity. First, each of you, draw a picture that makes you happy on the white board in your digital textbook. (시범을 보여 준다.) Then, say your line, using your facial expressions. For example, (시범을 보여 주며) "I touch a teddy bear, and I'm happy." Or "I feel my pet, and I'm happy." Take turns in a group.

... (하략) ...

(나)

최 교사: 이번 수업에서는 시를 학습 자료로 하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이해 영역 활동과 표현 영역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해 보았어요. 우선, 이해 영역의 ‘시 듣기’ 활동은 어떠셨나요?

동료 교사: ‘시 듣기’ 활동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인 ‘행복’에 대한 시를 듣게 하고, ㉠ 영어가 서투른 학생도 쉽게 공감을 표현하도록 하신 점이 좋았어요.

최 교사: 두 번째 활동인 ‘시 만들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도록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구상했어요.

동료 교사: 활동 절차를 단계별로 잘 알려 주셔서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고 활동에 참여하더라고요.

최 교사: ‘시 만들기’ 활동에서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과정·기능’인 (㉡)도 고려했는데, 수업을 마치고 보니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학생들마다 다양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신체 표현하기 활동을 추가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 1) (가)의 [A]에서 ㉠ 최 교사의 피드백에 대한 학생의 반응 중, 피드백을 반영하지 않은 학생의 발화를 찾아 쓰고, ㉡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다음을 참고하여 쓰시오. [2점]

Noticing refers to the process of the learner picking out specific linguistic features of the target language input which she or he hears or reads, and paying conscious attention to them so that the learner can notice errors in their output, utilize a teacher's feedback, and repair their own erroneous utterances.

- ㉠ _____
㉡ _____

- 2) (나)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최 교사의 발화를 (가)에서 찾아 1문장으로 쓰시오. [1점]

- 3) <보기>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3~4학년 내용 체계의 ‘과정·기능’의 일부이다. <보기>의 ㉣~㉦ 중에서 (나)의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기호를 쓰고, (가)의 ‘시 만들기’ 활동에서 ㉨과 관련된 최 교사의 지시 내용을 쓰시오. [1점]

—<보 기>—

- ㉣ 자기 소개하기
㉤ 주요 정보 묻거나 답하기
㉥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따라 말하기
㉦ 표정, 몸짓, 동작 수반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5. 다음은 예비 교사가 참관한 6학년 영어 수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3점]

김 교사의 수업

T: Alright, class. Now, listen carefully. Don't write anything. Just try to understand who the person is.

(글을 천천히 읽는다.)

My best friend is Tom. He is tall and funny.
He has brown eyes and black straight hair.

... (하략) ...

T: This time, listen again and write only key words.
(약간 빠른 속도로 다시 글을 읽는다.)

Ss: (학생들은 각자 핵심어나 어구를 메모한다.)

T: Okay, let's rebuild the story in a group. Work in a group of 4. Use your notes to write the story in full sentences.

Ss: Yes. (모둠별로 글을 작성한다.)

T: (1모듬 활동을 관찰한다.)

S1: 우리 각자 메모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글을 완성하자.

S2: 우리가 메모한 표현을 합쳐서 "Tom has brown eyes and black hair."라고 쓰면 되겠다.

S3: Tom이 누군지 먼저 써야 되지 않을까?

... (중략) ...

T: Good. Let's check together. Listen one more time and compare your story with mine.

Ss: (작성한 글을 모둠원이 서로 협업하여 수정한다.)

S1: 'funny'가 빠졌어. "He has a green hat."도 아닌데.....

S2: 'tall and funny'로 수정하자. 또 '모자를 쓰다'는 'wear'를 사용하는 것 같아.

S3: 맞아. "He is wearing a green cap."라고 들은 것 같아.

... (하략) ...

박 교사의 수업

T: (사진 4장을 제시하며) Look at these pictures. Do you know the names of these towers?

Ss: Namsan Seoul Tower! Eiffel Tower! ...

T: Great. You'll be tower experts and write about one of these towers. Now, each group will get one tower worksheet and four information cards. (Location, Color, Size, Shape 정보 카드를 보여 준다.)

Location

Tokyo, Japan

Color

orange and white

And each member of a group will have one of these cards. Ask each other questions, and answer using the information cards to complete the worksheet. (모둠별로 1개의 타워 정보를 채울 활동지와 모둠원별 정보 카드를 나눠 주며) Okay, get into your group and read your card quietly. Don't show it to others and find the missing information.

T : (Eiffel Tower 활동 자료를 받은 1모듬을 관찰한다.)

S1: Where is the tower?

S2: It's in Paris, France.

S3: What does it look like?

S4: It tall.

... (중략) ...

T : This time, use all the answers and write one paragraph about your tower. (참고할 글을 보여 준다.) Are you ready?

Ss: Yes. (글쓰기 활동을 시작한다.)

T : (1모듬의 Eiffel Tower 글쓰기 활동을 관찰한다.)

S1: 장소에 관한 정보인 'France'가 없네. 추가하자.

S2: 좋아. 그런데 'It tall'에 'is'를 추가해야지?

S1: 응. "It is tall." 이렇게 문장으로 써야 해. 또, 모양에 대한 것도 써야겠지?

S3: (문장을 보며) 아, 그렇게 써야 문장이 되는구나.

... (하략) ...

- 1) 다음은 예비 교사들이 김 교사와 박 교사의 수업을 참관한 후에 기록한 관찰 일지의 일부이다. ㉠~㉥ 중에서 수업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2가지를 골라 그 기호와 이유를 각각 쓰시오. [2점]

수업 관찰 일지

- ㉠ 예비 교사 A: 김 선생님과 박 선생님은 '의견 표현하기'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 ㉡ 예비 교사 B: 김 선생님은 학생들이 모듬별로 글을 작성하고 점검하도록 하였다.
- ㉢ 예비 교사 C: 박 선생님은 이해 기능보다는 표현 기능 중심의 수업을 하였다.
- ㉣ 예비 교사 D: 박 선생님은 학생에게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을 유도하였다.
- ㉤ 예비 교사 E: 박 선생님 수업에서 학생들은 보상 전략 (compensation strategy)을 사용하면서 글쓰기 과업을 수행하였다.

- _____
- _____

- 2) 다음은 김 교사가 수업에 활용한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의 () 안에 들어갈 용어를 1단어의 영어로 쓰시오. [1점]

() is a language teaching technique developed by R. Wajnryb (1990). It is designed to help L2 learners internalize certain grammatical elements that are built into a text. Learners listen to a short text, note down key words, and then work collaboratively to reconstruct the text. This process encourages learners to focus on both meaning and form while actively using the target language.

총론 · 창의적 체험활동

6. 다음은 ○○초등학교 교육실습 간담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기초소양 함양 방안에 관하여 지도 교사와 예비 교사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점]

지도 교사: 우리 학교에서는 이번 학년도 교육 중점을 '기초소양 함양'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중점 사항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에 관하여 말해 볼까요?

예비 교사 A: 여러 기초소양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별도의 과목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도 교사: 이렇게 개설하는 과목은 어떤 방식으로 편성하고 수업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예비 교사 B: 해당 과목은 관련 교과(군)에 편성하고, 디지털 기기 등 관련 학습 환경이 구비된 (㉠)을/를 마련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비 교사 C: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실험 중심의 과학실, 악기가 갖추어진 음악실과 같은 (㉡)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면 새로운 과목을 학습하는 데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지도 교사: 올해의 교육 중점은 창의적 체험활동에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비 교사 A: 새로 개설하는 과목과 연계된 주제 탐구 활동이나 프로젝트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다루면 좋겠습니다.

지도 교사: 그러한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다룰 때 유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비 교사 B: 학교에서는 주제 탐구 활동이나 프로젝트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융통성 있게 편성·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 교사 C: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주제 탐구 활동이나 프로젝트 활동의 세부 내용과 활동 방식도 결정해 주나요?

지도 교사: 좋은 질문이네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 학습자 주도의 교육과정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러한 성격과 그 ㉣ 설계 주체를 고려하면, 활동의 세부 내용이나 방식은 (㉤) 공동으로 계획하거나,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합니다.

- 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괄호 안의 ㉠을 운영하는 이유를 쓰시오. [1점]

- 2) 밑줄 친 ㉢과 ㉣을 고려하여 괄호 안의 ㉤에 들어갈 지도 교사의 말을 쓰시오. [1점]

사 회

7. 다음은 6학년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학습 공동체에서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5점]

김 교사: 수업 사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사: 저는 탐구 문제를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역할을 탐색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탐구 활동지입니다.

탐구 활동: 기업의 역할을 알아봅시다.		
	[자료 1]	[자료 2]
자료	<div>○○기업 초경량 텐트 인기</div> <div>매출액 변화</div> <p>(억 원)</p> <p>-200억 원 785억 원</p> <p>2019 2020 2021 2022 2023(연도)</p>	<div>○○일보 2025년 ○○월 ○○일</div> <div>△△ 지역, ◇◇기업 이전 효과</div> <div><div>상용 근로자 6,200명 증가</div><div>전체 취업자 8,900명 증가</div></div>
	결론 도출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해 알 수 있는 기업의 역할: (

김 교사: 학생들이 [자료 1]과 [자료 2]를 근거로 기업의 역할을 도출하도록 하였네요. 이 수업에서 중점을 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 교사: 기업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 즉 (㉠)
을/를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최 교사 : 그런데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을/를 추구하면서 (㉡)을/를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환경을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활동하며, 윤리적으로 경영하는 것과 같이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를 수업에 반영하라는 것이지요.

김 교사: 저도 기업의 역할을 지도할 때, 기업이 단순히 (㉠) 을/를 추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친환경 원료 사용, 근로자 권리 존중, 기업 윤리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교사: 그런데 기업의 (㉔)을/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주체라는 것을 학생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자유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사: 하지만 기업이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을/를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의견이 다양한 듯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역할과 관련한 가치문제를 수업에서 다루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김 교사: 좋은 의견입니다. 사회적 차원의 가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합리적 가치 선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가치 탐구의 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 교사: 저도 이 주제를 다루는 수업을 할 예정인데, ‘기업은 친환경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뱅크스(J. A. Banks)의 수업 모형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된 가치와 대안을 균형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가치문제의 인식
전개	가치 관련 행동 진술 → 행동과 관련된 가치에 이름 붙이기 → ㉠ 대립 가치 확인 → 가치의 원천 진술 → 대안적 가치의 진술 → 대안적 가치의 결과 예측 → 가치 선택 → (㉡)
정리	선택에 따른 행위

1) 괄호 안의 ㉠에 들어갈 기업의 역할을 2가지 쓰시오. [2점]

- _____
- _____

2) 밑줄 친 ㉠의 의미를 반영하여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점]


3) ①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포함하여 밑줄 친 ㉡의 단계에서 대립하는 가치를 각각 쓰고, ② 괄호 안의 ㉢에 들어갈 수업의 절차를 쓰시오. [2점]

① _____

② _____

8. 다음은 4학년 ‘지도로 만나는 우리 지역’에 대한 수업 협의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4점]

김 교사: 이번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지도의 요소를 이해하고,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지도를 만든 다음 지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장소의 위치를 파악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지도의 요소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생 활동 결과물입니다.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지도를 만들 때, 들어가야 하는 지도의 요소와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 **학생 A** 방위표를 넣으면 우리 지역의 남쪽에 강이 있고, 동쪽에 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학생 B** 축척을 넣으면 우리 학교에서 시장까지의 실제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 **학생 C** 등고선을 넣으면 평지를 기준으로 한 우리 지역의 산의 높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학생 D** 기호와 범례를 넣으면 여러 장소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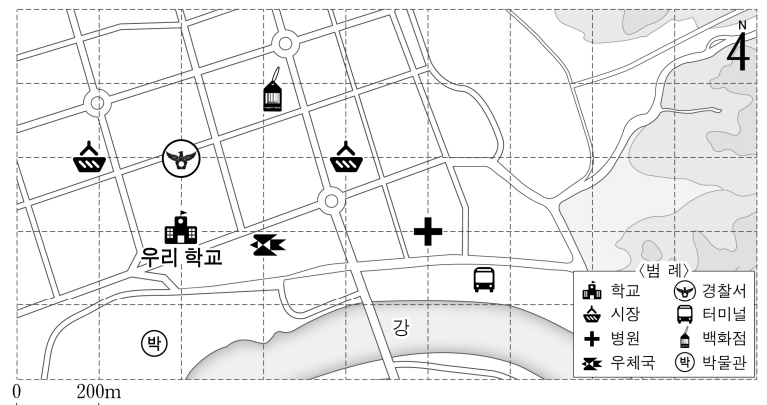
수석교사: 지도의 요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네요.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셨나요?

김 교사: 지도의 요소 중 (㉠)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를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수석교사: 이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김 교사: 두 번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지도의 요소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도에서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장소를 찾아 위치를 설명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 한 병원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 학생들이 만든 OO 지역 소개 지도 ■■■■■■■■■■



수석교사: 잘 지도하셨네요. 지도 학습에서는 공간적 정보와 자료를 시각 자료로 가공 및 변환하고, 시각 자료에 저장된 정보를 (㉢)할 수 있는 도해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교사: 저도 그 점을 고려하여 평가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구분	평가 내용
가공 및 변환	• (㉢)
(㉢)	• 지도의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지도에서 관찰되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1)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포함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쓰시오. [1점]

2) 제시된 지역 소개 지도의 방위와 축척을 활용하여 밑줄 친 ㉡을 쓰시오. [1점]

3) ①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② 김 교사의 수업 활동을 고려하여 괄호 안의 ㉢에 들어갈 평가 내용을 쓰시오. [2점]

- ① _____
- ② _____

도 덕

9. (가)는 4학년 도덕 수업에 대하여 강 교사와 김 교사가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강 교사가 작성한 수업 후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5점]

(가)

강 교사: 4단원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김 교사: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개발된 이 단원은 2015 개정 도덕과의 자율형 단원의 취지를 계승하되 제시 방식을 보완하였어요. 자율형 단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단원에 앞서 배운 정직, 도덕적 행동, 친구 간의 배려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학습을 심화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화 방식에는 (㉠)과/와 (㉡)의 2가지가 있는데, (㉠)에서는 ㉢ 소재 선정이 중요하고, (㉡)에서는 교수·학습 방안 적용이 중요합니다.

강 교사: 그렇다면 정직, 도덕적 행동, 친구 간의 배려와 관련한 도덕 규범을 심화하는 과정을 수업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김 교사: 이 단원에서 첫 번째 수업의 소재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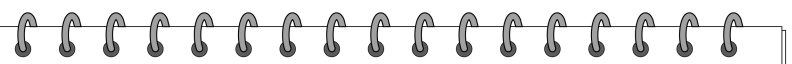
강 교사: 친구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정직, 도덕적 행동, 배려를 아우를 수 있는 ㉣ 우정으로 정했는데, 우정의 참된 의미를 학생이 깨닫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생각 중입니다.

김 교사: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등장하는 우정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면 어떨까요? 이 책에서 우정은 ‘유익, 쾌락, 선함’이라는 3가지 종류로 소개되고 있는데, 유익과 쾌락에 근거한 우정은 한계점이 있는 데 비해 선함에 근거한 우정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의미의 우정입니다. 우정은 감정이 아닌 품성 상태입니다.

강 교사: 이번 수업은 친구 사이에 선함에 근거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되,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친구를 배려하여 행동할 수 있는 품성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겠네요.

김 교사: 네, 좋은 방안입니다.

(나)



[활동 주제]

우정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활동 내용]

도입 단계에서는 ㉤ “다른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친구 없는 삶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명언을 읽은 다음 학생들의 경험, 감정, 생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전개 단계에서는 ‘유익과 쾌락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친구를 위한 배려였다고 말한 ○○이, 그리고 그 말에 깊은 서운함이 생겨 관계를 끊을지 말지를 갈등하는 □□이의 고민’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질문을 만들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였는지 그 이유와 배경도 함께 적도록 지도하였다.
... (중략) ...

[느낀 점]

학생들과 우정의 의미를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었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지만, 이번 수업만으로는 우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부족함이 있음을 성찰하였다. ㉠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온다고 하루 아침에 봄이 오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떠올리면서, 후속하는 수업에서는 이 단원의 취지와 활동 성격을 고려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도덕과 학습 지도의 기본 원리 중 ㉡ 심정화의 원리와 ㉢ 통합성의 원리를 잘 구현하고 싶다.

- 1) ① (가)의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밑줄 친 ㉡의 조건을 쓰고, ② (가)의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방식의 의미를 쓰시오. [2점]

① _____
② _____

- 2) 다음은 (나)의 밑줄 친 ㉣과 ㉤을 언급한 학자의 ‘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글의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점]

- 덕은 그리스어 ‘아레테(aretē)’에서 온 말로서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가 그 기능과 목적 면에서 (㉥)을/를 지님을 의미한다.
○ 칼은 물건을 베거나 자르는 데 (㉥)을/를 지니고 있을 경우 칼에 덕이 있다고 본다.

- 3) ① (가)의 밑줄 친 ㉢을 포함하여 (나)의 밑줄 친 ㉦의 의미를 쓰고, ② (가)의 밑줄 친 ㉣을 포함하여 (나)의 밑줄 친 ㉧의 의미를 쓰시오. [2점]

① _____
② _____

실과

10. (가)는 예비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도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고, (나)는 수업에 활용할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5점]

(가)

예비 교사: 2022 개정 실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니 생명기술 관련 성취기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인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도 교사: 학생이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의 생산뿐 아니라 ㉡ 환경 보전, 생태계 보전, 지역 사회 유지, (㉢)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 예로는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는 농업 및 농촌과 관련한 세시풍속을 이어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협의회에서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채소 가꾸기’를 주제로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잘 준비하고 있나요?

예비 교사: 킬패트릭(W. H. Kilpatrick)의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채소 가꾸기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목적 설정	• 학생의 채소 재배 관련 경험과 관심 확인하기 • (㉣)	㉤ 다양한 채소 종류 카드
계획	• 채소 재배 방법 조사하기 • 채소 재배 계획 세우기	재배 계획서
실행	• 채소 재배하기 • 채소 재배 일지 기록하기 • 재배한 채소로 음식 만들기	재배 일지
(㉥)	• (㉦)	

지도 교사: 그렇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으니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 영역과 연계하여 스마트팜 프로그래밍 활동을 추가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 (중략) ...

예비 교사: 스마트팜 알고리즘과 이를 구현한 프로그램은 (나)와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토양수분함량(%)을 1 이상 100 이하의 숫자 데이터로 입력한 후, 토양수분함량이 30 이상이면, ‘수분이 충분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토양수분함량이 30 미만이면, 30 이상이 될 때까지 토양수분함량의 값을 1씩 증가시키다가, 토양수분함량이 30 이상이면 ‘수분을 보충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메시지가 출력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지도 교사: 프로그램 구현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예비 교사: 프로그램에 입력 데이터로 0.5를 입력하면 1 이상 100 이하가 아님에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를 버림하여 일의 자리까지만 나타내는 블록(Ⓢ의 [소수점 버림값])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블록에 10.5를 입력하면 10으로 처리됩니다.

(4)

```

graph TD
    Start([시작]) --> Input[/1 이상 100 이하의  
숫자 데이터 입력/]
    Input --> Store[입력된 데이터를  
토양수분함량 변수에 저장]
    Store --> Decision1{토양수분함량이  
30 미만인가?}
    Decision1 -- 아니요 --> Output1[/“수분이 충분합니다.”  
메시지 출력/]
    Output1 --> End([종료])
    Decision1 -- 예 --> Process1[토양수분함량 ←  
토양수분함량 +1]
    Process1 --> Decision2{토양수분함량이  
30 이상인가?}
    Decision2 -- 아니요 --> Process1
    Decision2 -- 예 --> Output2[/“수분을 보충했습니다.”  
메시지 출력/]
    Output2 --> End
  
```

▶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스마트팜의 토양수분함량을 입력해 주세요. 을(를) 묻고 대답 기다리기 ?

토양수분함량 을(를) (대답)의 [소수점 버림값▼] (으)로 정하기 ?

만일 <<(0) < [토양수분함량▼ 값] >> 그리고 <<[토양수분함량▼ 값] < (30)>> (이)라면 ▶

<<(29) < [토양수분함량▼ 값] >> 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 ▶

토양수분함량 에 ① 만큼 더하기 ?

수분을 보충했습니다. 을(를) 말하기 ▼ ☘

아니면

수분이 충분합니다. 을(를) 말하기 ▼ ☘

- ① _____
- ② _____

- ① _____
- ② _____

(이하 여백)